

건강 칼럼

손발 관절의 ‘결절종’ 그냥 놔둬도 될까?

하루의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직장인 A씨. 손목 부위에 작은 혹이 생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육신거리는 통증까지 생기자 정형외과를 찾았다. A씨는 ‘손목 결절종’ 진단을 받았다.

최근 이씨처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또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들 중에서 손목 결절종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손등, 발등의 둥근 물혹
결절종은 손, 발의 힘줄이나 관절에 생기는 물혹이다. 힘줄을 싸고 있는 얇은 섬유성 피막 내에 관절액이 차면서 막이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한다. 결절종은 주로 뚱글글 뚱글글하면서 부드러운 감촉을 가진다. 물혹을 두드려보면 약간 출렁거리고, 손목을 굴곡하면 그 윤곽이 보다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다.

주변 조직과의 경계가 명확하고 보통 손등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손가락이나 손바닥, 발등에도 생긴다. 결절종의 진단은



정 기 진

순천현대부속천안병원 정형외과 교수

종양이 생긴 위치와 모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딱딱한 콩모양의 종양이 단져지며, 증상에 따라 압통이 동반되고 잘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외상이나 과도한 사용이 원인

결절종은 외부의 충격이나 손목, 발 등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외상이나 과도한 손목과 발목을 사용하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닳게 되어 퇴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점액을 생성하게 되는 데 결절종은 이때 발생한다. 발생 비율은 20~30대에 흔하게 나타나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엑스레이, 초음파, MRI로 확인
촉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X-ray) 촬영, 초음파검사, MRI 등도 필요하다. 검사는 결절종 진단 외에도 관절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관절 내 다른 연부조직의 이상 유무와 결절종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등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통증이 심하면 치료
결절종은 양성 종양으로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통증이 없다면 그냥 두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혈관이

나 신경 주변에 생기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때는 반드시 치료 받아야 한다.

대부분 상태에 따라 약물, 주사로 치료한다. 하지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하고 관절낭까지 도달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관절내시경을 통해 결절종을 제거하는 수술도 많이 시행된다.

수술은 크기가 크거나 신경을 압박해 통증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시행한다. 수술은 30분 정도, 입원기간은 보통 1일 정도, 수술 2주 후에는 실밥을 제거한 후 경과를 관찰한다.

△재발률 높아 예방노력 필요
결절종은 한 번 발생하면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높아 평소 예방에 힘써야 한다. 결절종은 손목과 발 등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고,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보조대를 착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결절종 증상이 보일 경우 신속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사설

어느 메디컬 헬스케어의 도약

국내 유명 메디컬 헬스케어 회사가 회사 이름을 바꾸는 등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고 나서 주목된다. ‘솔고 바이오 메디칼’은 지난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미지 쇄신, 경영전략 제고를 위해 ‘알파녹스(Alphanox Co.,Ltd)’로 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주총에서는 자본감소 결의(무상감자), 정관 변경(사명 변경·사업 목적 생략 및 추가)의 안건이 의결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인터넷 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자문 및 서비스업 △임베디드 시스템의 제조, 판매, 대여 및 유지 보수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앞서 지난 3월 메디컬 헬스케어 사업의 신제품 개발, 제조, 구매 등의 투자를 위해 운영 자금 6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가 기존 32.1%에서 MDS테크(보유비율 15.05%)로 변경됐다. 알파녹스는 사명 변경을 통해 기존 주력 사업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과 신사업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회사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메디컬 사업의 영역 확대와 외과용 임플란트, 수술기구, 헬스케어 부문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1위 의료기기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임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대표 메디컬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립 50주년을 맞은 알파녹스는 외과용 수술기구, 외과용 임플란트, 체외진단기기,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 제조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 및 제품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

12·3 내란 사태의 주된 원인이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무속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몇 개월 전 한 극우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매체는 지난 6월 2일 대통령이 주변 비난을 우려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지시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천공 특별대담’ 기사를 냈다. 기사는 ‘가짜 국회의원 의혹이 제기되는 범야권 192석의 공략 위기를 부정선거 수사로 손쉽게 견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천공은 “국정원이 됐든 지금 모든 기관에는 전부 다 뒷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며 ‘주사파들과 주사파들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들을 거기다 전부다 앉혀 놔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천공은 중북 좌파나 주사파 등에 관한 내용

을 다루면서도, 답변들은 재차 부정선거 얘기로 집중됐다. 대선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 공판대 형성을 유도하기도 했다. 강연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수사 지시 필요성까지 우회적으로 괴렷했다. 천공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다. 앞서 천공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매체는 수년 전부터 극우단체 등이 제기하고 고발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단신 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의 형태로 연속 보도해 왔다. 이런 보도 내용들이 극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 재생산되며 관련 의혹이 확산됐다.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확대되고, 급기야 윤 대통령마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선거 조작 가능성에 관한 수사를 내세운 배경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산타 런’ 행사 전 셀카 찍는 참가자들



15일(현지시각)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연례 ‘산타 런’ 행사가 열려 산타클로스 복장의 참가자들이 행사 시작 전 셀카를 찍고 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썰매 즐기는 러시아 사람들



15일(현지시각)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람들이 썰매를 타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